

# 내장산 상가지구 교량 4곳에 야간 조명

### 정읍시 3억5000만원 들여 설치 내장산 관광객에 새 볼거리 제공

정읍시가 내장산 상가지구 교량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읍시는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3억5000만원을 들여 내장산 상가지구 내 봉룡교, 서래교, 신선교, 연자교 등 4곳에 각각의 의미를 담은 디자인 조명을 설치했다.

교량 조명은 야간에 내장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더 특별하게 내장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봉룡교(鳳龍橋)에는 상상과 전설 속의 신령한 네 가지 동물 중 하늘을 상징하는 봉황(鳳)과 땅을 상징하는 용(龍)의 '동지'를 감싼 형태를 형상화하는 조명을 설치했다.

또 서래교(西萊橋)에는 논과 밭을 상징하는 씨레질의 '빚살무늬'를, 신선교(神仙橋)는 신선을 떠올리게 하는 구름을 형상화했으며, 연자교(燕子橋)에는 '제비 다리'를 형상화하는 등 다채로운 빛 콘텐트를 교량 각각에 설치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조명은 일몰(오후 5시)에 맞춰 자동 점등되고 야간 빛 공해와 수목 생육의 영향을 고려해 심야 시간(밤 11시)에는 자동 소등되도록 운영할 계획



정읍시가 내장산 상가지구 서래교(西萊橋)에 설치한 야간조명. 논과 밭을 상징하는 씨레질의 '빚살무늬'를 형상화 했다. <정읍시 제공>

이다.

시는 내장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경관조명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계절 관광객 방문을 유도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주변 상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양 정읍시 관광과장은 "이번 경관조명이 내장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장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휴식과 힐링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군산시 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군산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군산시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성장 및 에너지 정책 추진 기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은 전국 최초 시민참여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새만금 내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공공주도 해상풍력, 그린수소, RE100 산단 조성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용역은 2022~2026년까지 5년간의 군산시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을 시민참여형으로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군산시 지역에너지 및 에너지 소

비현황 분석 ▲군산시 에너지 전환 비전과 추진 전략 수립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발굴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익 공유 방안 ▲시민참여형 특화사업 발굴 ▲에너지 복지대책 발굴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별,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감축 목표 설정 ▲단기·중장기 구체적 실행 로드맵 작성을 함께 추진해 정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북도 제4차 지역에너지 계획에 발맞춰 지역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은 에너지 복지사업 발굴을 통한 시민발전 수익 공유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에너지계획을 내 있게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고창군,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323동 철거

고창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실태조사 추진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고창군은 올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위해 군비 11억1292만원을 투입, 총 323동(주택 168동, 비주택 26동, 보란·방치 폐슬레이트 129동 등)을 철거·처리했다.

앞서 군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4~11월)'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전수조사 이후 8년만에 실시한 조사에서 지역 내 총 슬레이트 동수는 8577동으로 집계됐다. 건축물 용도별로 주택 6728동, 축사 88동, 창고 1597동, 공장 26동, 기타 건축물 138동으로 확인됐다.

고창군은 내년에는 사업비 12억780만원을 투입해 주택 250동 등 모두 320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 모습. 이성수 고창군 생태환경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남원시보건소 7년 연속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

남원시보건소가 7년 연속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남원시는 전북도의 '2021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시 보건소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탁월한 보건행정서비스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3개 보건사업을 통합해 사업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와 주민요구도 등을 분석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보건소는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제에서도 '자가 격리자 비대면 건강증진사업'과 '워킹온 경기활원지', '정소년 금연영상 공모전' 등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을 발굴했고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보건사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속 단계적 일상회복 실현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해 시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익산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통



지난 17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수홍(익산갑) 의원, 유재구 정읍시의회의장 등이 개통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 익산~논산 연무 IC 연결 물류혁신·지역발전 기대

익산지역이 사통팔달 교통요지 입지 강화를 통해 물류혁신을 도모한다.

익산시는 익산에서 논산 연무 IC를 연결하는 일반산단단지 진입도로 개통식을 지난 17일 개최했다.

이 도로는 제3산단단지부터 논산 연무 IC까지 11.86km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으로 조성됐다.

시는 당초 준공 목표인 2022년부터 1년 앞당겨 도로 개설을 완료했다.

시는 조기 준공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를 통한 중

양부처 설득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는 국가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개통된 도로는 18일부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됐다.

시는 이 도로 개통으로 지역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민과 입주 기업들의 접근성도 향상됐다.

산단 입주 기업들은 30km 가량 떨어진 익산 IC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으며 이동 시간은 20~30분 단축됐다.

시는 교통 편의 증진으로 산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투자 유치 활동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순창군, 부동산 업무 공무원 신규 취득 제한

순창군이 소속 공무원들의 부동산 부정취득을 방지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순창군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해 부정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순창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소속 직원들이 직무 관련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마련된 지침이다.

지난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군은 이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만들어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부처와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했다.

예외적 취득 사유가 발생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했고 감사부서의 장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또 건설과 등 8개의 부동산 유관부서 직원 133명을 추가로 재산등록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달 30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제한 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로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지침마련을 계기로 공직자 정령도를 높여 신뢰받는 순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기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기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